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33화)

#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양심의 율법을 선포

- 7절: 영적 동정녀인 다섯째 천사와 둘째 아들인 일곱째 천사**
- 1) 피란길에 오른 다섯째 천사
  - 2) 2차 점령을 시도하는 하나님
  - 3) 너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라
  - 4) 대규모 야외집회를 개최함
  - 5)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 6) 1950년 중반, 감람나무에 대한 교계의 해석

## 3) 너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라

(지난호에 이어서)

###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다섯째 천사의 벼락같은 소리가 장내를 찌릿찌릿 울리자, 불구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있던 불구자가 불끈 솟았다가는 다시 거꾸러지고, 소아마비 병으로 송곳같이 된 어린아이의 가느다란 발이 부르르 떨면서 땅을 디디고 일어섰다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섯째 천사는 단상에서 연거푸 벼락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마침내 두 명의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펄펄 뛰며 기뻐하며 날뛰었습니다. 환자 40명 가운데 절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완치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장내의 신도들은 환희에 넘쳐 소리 높여 할렐루야 찬송가를 연달아 불렀습니다.

## 4) 대규모 야외집회를 개최함

1955년 3월 중순에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이제 교회 실내에서 나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광야에서 집회를 개최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다섯째 천사 박태선 장로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남산공원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1955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 남산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구름같이 모여들은 신자들로 총인원 60만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감색 양복차림을 한 다섯째 천사가 단상에서 찬송을 인도하면, 모든 신자들이 손뼉을 치며 우렁차게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콧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고 또 그 시원한 성령의 바람은 뱃속 깊이 내려가서 몸을 진동함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넘쳐나게 하였습니다.

### 창세기 27장 27절

내 아들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 호세아 14장 5-6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로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의 아름다운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이로니

다섯째 천사가 인도할 때에는 수만 명에 가까운 신자들이 수십 개의 대형 천막 아래서 가마니를 깔고 앉아서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쉬지 않고 손뼉을 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다섯째 천사는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양심의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예배를 마칠 때면, 다섯째 천사는 언제나 안찰을 베풀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행하는 안찰을 받고 앉은뱅이가 걸으며 병어리가 말하게 되는 등 수많은 환자들이 완치되었습니다. 또 한참 동안 찬송을 인도하다가 멈추고



안찰기도로 죄를 소멸하는 다섯째 천사 박태선 장로님

“여기에 와서 병 나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라.”고 하니,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너도나도 일어나 자신들의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였습니다.

### 목사들 전부가 안찰기도를 받아 죄를 소멸해야 은혜로운 집회가 될 것이다

집회 사흘째 되는 28일, 저녁집회를 앞둔 다섯째 천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네가 오늘 저녁 집회단상에 오르거든 ‘주최자 측의 목사들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으니, 목사들 전부가 안찰기도를 받아 죄를 소멸해야 은혜로운 집회가 될 것이다.’고 답대하 외쳐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천사는 ‘목사들이 일개 장로에게 안찰을 받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갔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저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드디어 저녁집회시간이 임하여 단상에 오른 다섯째 천사는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여, “주최자 측의 목사님들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으니, 목사님들이 안찰기도를 받아 죄를 소멸해야 은혜로운 집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외

침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 안찰을 받은 목사들 중에는 능력이 생겨 교인들에게 안찰하여 병고침의 이적을 행하다

안찰을 받은 목사들은 각자 그들의 교회로 돌아가서 신자들에게 다섯째 천사가 인도하는 남산집회참여를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섯째 천사의 안찰을 받을 때 체험한 은혜의 불성신과 생수연결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만약 안찰을 받고 지병이 완치되었다고 목사들이 간증하게 되면, 안찰받기 전에 목사 자신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유명 목사들은 체면이 있느냐 호 텔의 방을 잡아놓고 그곳에 다섯째 천사를 몰래 모시고 와서 안찰을 받곤 하였습니다. 다섯째 천사를 점령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어야 할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때면 그 목사들의 청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안찰을 받은 목사들 중에는 능력이 생겨 자기 교회로 가서 다섯째 천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모방하여 교인들에게 안찰하여 병고침의 이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산집회에서는 실소를 금지 못할 일도 많았는데, 그 중에 문교주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한창 설교하는 중이던 다섯째 천사에게 누군가가 메모쪽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천사는 그 쪽지를 한번 쓱 훑어보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향해, “문교주가 이 쪽지를 보내왔는데 자기가 구세주이니가 박장로는 자기에게 와서 경배하라.”는 내용이라고 알려주면서 크게 웃었던 것입니다.

백여 명의 목사들이 안찰을 받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로운 집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 특

히 주말 저녁집회에 3만 5천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천사에게 명하기를, “너는 집회 단상에 올라 은혜를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 ‘외국인의 손을 빌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오만(五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단을 짓도록 하자.’라고 외쳐라.”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다섯째 천사는 여호와와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외쳤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였는데 심지어 금반지와 금팔찌 그리고 금목걸이 등의 귀중품을 기꺼이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헌납된 돈과 귀중품은 차고 넘쳐서 여러 가마니에 담아야 했으며, 금반지만 해도 석 피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섯째 천사를 위해서 예비한 현물과 금전이었습니다. 앞으로 수 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다섯째 천사가 기성교단의 목사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핍박받을 것을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목사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은혜를 갈급해하는 교인들이 예배당을 텅텅 비운 채 다섯째 천사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에 날래게 달려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를 이끄시고 주장하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1일간의 남산집회에서 6천 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담을 찾는 데 성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렸던 아담을 ‘살려주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구세주로 키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섯째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감람산(Mt. Olive; 일명 노구산露求山) 정상에 오만제단을 세워라!”고 하셨습니다. ‘五萬(오만)의 五(오)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성경 말씀과 같이 구세주를 상징하는 숫자로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박한수



# 2018 메시아절

## 오천년 전부터 지켜온 절기



1 올해 마지막 행사 메시아절 사회에서 영생학의 정빛 미래를 언급하며 희망을 전해준 안병천 목사



2 대구제단의 거인 리준경 송사의 테마가 있는 노래



3 부산제단 식구들의 합창은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이 절절했다



4 분부제단 청년들의 패기와 활력을 듬뿍 뽐낸 남성중창



5 성모님 태몽 속 천사들이 아마 이렇게 춤을 추지 않았을까 / 보광패션 워십댄스(Warship Dance)



6 진해제단 이상선 송사가 장구송씨를 뽐낸 후 덩실덩실 춤까지 했는데 지면관계상 못 실었어...



7 무궁화합창단의 기량은 점점 완성을 넘어 완벽으로 가는 듯 심금을 울린다



8 무궁화관현악단과 무궁화합창단의 합연은 보이스와 악기가 콜라보를 이뤄 더욱 힘찼다



9 행사의 대미를 파워풀한 연주로 마무리한 무궁화관현악단